



믿고 보는 쇼트트랙

심석희

최민정

D-7

1992년 동계올림픽 김기훈 첫 금 시작으로 대회마다 금빛 행진

총 26개 금 중 21개 80.77% 차지...올해도 최소 3개 이상 기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이지만, 한국 쇼트트랙은 올림픽 역사상 세계 정상의 자리에서 단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었다.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19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부터 2014년 소치 대회까지 명실상부한 한국 동계스포츠의 간판 종목으로서 혼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쇼트트랙은 사상 최초로 안방에서 열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한국의 종합순위를 좌지우지할 핵심 종목이다.

한국 쇼트트랙은 1992년 알베르빌 대회에서 김기훈이 남자 1,500m, 남자 계주에

서 금메달 2개를 획득하며 화려하게 데뷔했다. 한국이 따낸 동계올림픽 첫 금메달이었다.

2년 뒤 열린 릴레함메르 대회 때는 김기훈이 남자 1,000m, 채지훈이 남자 5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전이경이 여자 1,000m와 계주에서 2관왕에 오르며 총 4개의 금메달을 만들었다.

1998년 일본 나가노 대회에서는 김동성이 대표팀 에이스 역할을 이어받아 남자 1,000m 우승을 차지했다. 전이경은 다시 한 번 2관왕에 올랐다.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는 미국 안톤 오노의 '할리우드 액션'과 편파판정 시비 속에서도 금메달 2개(고기현·여자 1,000m, 여자 계주)를 목에 걸었다.

한국 쇼트트랙은 2006년 토리노 올림픽에서 만개했다. 안현수(러시아 명 빅토르 안)와 진선유가 각각 3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며 쇼트트랙에 배정된 금메달 8개 중 6개를 싹쓸이했다.

1992년 알베르빌 대회부터 토리노 대회까지 5개 대회에서 한국이 따낸 금메달은 모두 쇼트트랙에서 나왔다. 그만큼 쇼트트

랙은 한국 동계스포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했다.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선 금메달 2개를 획득해 스피드스케이팅(3개)에 밀렸지만,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한국이 차지한 금메달 3개 중 2개를 차지하며 다시 최고 효자 종목 자리를 되찾았다.

한국 쇼트트랙은 1992년 알베르빌 올림픽 이후 대회마다 최소 2개에서 최대 6개의 금메달을 조국에 안겼다. 총 26개의 금메달 중 21개를 책임졌는데, 비율로 따지면 80.77%나 된다.

한국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쇼트트랙은 최소 3개 이상의 금메달을 바라보고 있다.

여자대표팀의 '쌍두마차' 최민정(성남시청)과 심석희(한국체대)가 출격하는 여자 1,000m, 여자 1,500m, 여자 3,000m 계주는 '확실한 종목'으로 꼽히고 있고, 남자부에서도 임효준(한국체대), 황대현(부흥고) 등이 금메달 획득을 노리고 있다.

한국 대표팀은 코치의 심석희 폭행 파문으로 큰 상처를 받았지만, 팀 분위기를 추슬러 힘을 다시 내고 있다.

쇼트트랙 대표팀이 4~5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면 한국은 무난히 목표 달성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남북 화기애애 올림픽 사상 최초로 결선전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28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빙상장에서 첫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아이스하키 마지막 실전

내일부터 카자흐스탄·슬로베니아·러와 평가전

백지선(51·영어명 짐 팩)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겨냥한 마지막 실전 점검에 나선다.

대표팀은 1일부터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인턴선학리크로 장소를 옮겨 마지막 전력 담금질에 돌입했다.

대표팀은 3일 오후 7시 카자흐스탄과 1차 평가전을 시작으로 5일 오후 9시 카자흐스탄과 2차 평가전, 8일 오후 7시에는 슬로베니아(이상 인턴선학리크), 10일 오후 2시에는 러시아와 평가전(안양 실내빙크)을 치른다. 한국은 지난해 4월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디비전 1 그룹 A 대회 2차전에서

카자흐스탄을 5-2로 꺾고 12전 전패 끝에 첫 승리를 일궈낸 바 있다.

한국은 카자흐스탄과 이번 평가전에서 다시 한 번 승리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자신감을 쌓는다는 각오다.

선봉에는 김기성-김상욱(이상 안양 한라) 형제가 나선다.

김기성과 김상욱은 최근 6차례의 친선 경기에서 '찰떡궁합'을 선보이며 대표팀 공격을 이끌었다.

카자흐스탄 대표팀에서 활약하는 캐나다와 미국 출신 귀화 선수들이 전원 제외된 채 맞붙었던 삿포로 동계아시안 게임에서 한국은 0-4로 졌다. /연합뉴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8일 앞둔 1일 강릉선수촌에서 열린 개촌식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참가국기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취재단·권태영 기자

선수촌에 92개국 깃발 제양...인공기 4년만에 펄럭

강릉선수촌 입촌식 열려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실상 종목 선수들의 보금자리인 평창선수촌과 빙상 종목 선수들의 안식처인 강릉선수촌이 대회 개막 8일을 앞둔 1일 공식 개촌했다. 평창선수촌 공식 입촌식은 선수촌 국기광장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서 열렸다.

입촌식에는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등 내외빈 200명이 참석했다.

지난달 30일 평창에 도착해 이틀남 평창선수촌을 둘러본 바흐 위원장은 "올림픽의 심장인 이곳에 와서 기쁘다"면서 "역대 동계올림픽 최고의 선수촌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어 "선수촌에서 선수들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올림픽 정신을 향유하고 서로 친구가 되길 기원한다"고 했다.

노태강 차관은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선수들의 기억에 오래 남도록 우리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바흐 IOC 위원장과 구닐라 린드베리 IOC 조정위원장에 강연도 명예 도민을 뜻하는 강원도 명예 '감자' 칭호를 수여했다.

유승민 IOC 선수위원 겸 평창선수촌장은 "선수촌을 안전한 시설로 운영해 선수들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바흐 위원장과 이희범 위원장 등 내빈과 자원봉사자들은 비둘기 모양으로 제작된 평화의 비둘기 풍선을 하늘로 날려 보내는

세리머니로 선수촌 개촌을 축하했다.

작공 2년 5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중순 완공된 평창선수촌은 15층 건물 8개 동 600세대로 구성됐다.

이미 입촌한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선수들은 아파트 발코니에 자국 국기를 내걸고 영예를 표시했다.

경기광장 중심엔 개최국 우리나라의 태극기, 근대 올림픽의 발상지인 그리스기, 올림픽 오륜기, 유엔기,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기가 자리했다.

이를 중심으로 참가국 92개국의 깃발이 휘날렸다. 북한 인공기도 이날 공식 제양됐다. 남한에서 개최한 국제 스포츠이벤트에서 북한 인공기가 제양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경기광장 인근엔 각종 편의 시설로 구성된 건물이 자리했다. /연합뉴스

이 건물엔 간이식당, 편의점, 미용실, 은행, 우체국, 삼성전자 홍보 전시관, 평창동계올림픽 기념품 판매점 등이 들어섰다.

소총으로 무장한 경찰특공대(SWAT) 팀이 조를 이뤄 선수촌을 돌며 보안에 각별한 신경을 썼다.

평창선수촌에선 5일 오후 1시 루마니아·차메리카·브라질·벨기에 4개 나라의 공식 입촌식이 거행된다. 독일·마다가스카르·몰도바·나이지리아·아르메니아·뉴질랜드·프랑스·미국 8개 나라는 6일 입촌식을 연다.

강릉선수촌에서도 같은 시간 입촌 행사가 열렸다.

선수 144명과 임원 75명을 합쳐 총 219명으로 이뤄진 대한민국 선수단은 7일 오전 11시 강릉선수촌 국기광장에서 공식 입촌식을 연다. /연합뉴스